

미얀마의 미래

덕성여자대학교 묵사발

김가현, 이자은, 윤소현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01. 팩트 체크

미얀마 쿠데타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2020년 11월 총선 승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녀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제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군부 협의체를 통해 강제적으로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문민정부의 부정으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YTN, 2021).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군부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또한 쿠데타의 동기라고 분석했다(김종성, 2021).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시위대 수십만 명이 군부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 및 총격으로 미얀마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현재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며, 국영방송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머리와 몸에 총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MBCNews, 2021).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사상자 수는 500여 명을 훌쩍 넘긴 상태이다.

02. 미국과 중국, 중국의 배후설

이번 사태에 관해 UN 안보리 주요 국가들의 의견 대립 또한 볼 수 있다.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 규정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개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평소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개입에 관해 굉장히 조심스러우며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중국은 이번 쿠데타 사태의 배후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는데,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1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에게 미얀마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따라서 중국이 친중 군부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3. R2P(보호책임)원칙 발효 권한 문제

UN은 미얀마 군부에 무차별적 시민 학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만 한 채, 여전히 직접적 개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R2P'원칙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규범, 즉 R2P가 발효되면, 국제사회는 그 국가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에는 이 R2P가 발효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부의 대규모 학살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미얀마에는 왜 R2P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것이 발효되기 위한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대상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04. 목사발 의견

첫째, 미얀마에 UN 평화유지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내부적 문제로 다른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겠지만,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UN군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세계시민적 의미와 상징성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필요하다.

둘째, 이 사태는 미·중 패권 다툼이 아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 배후설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을 배경으로, 현 미얀마 사태를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중이 각자 미얀마의 민주화보다는, '미얀마라는 약소국을 이용한 패권 싸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미얀마 사태의 본질과 의미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돌아보고, 미·중 두 나라의 권력 다툼 이전에 미얀마의 평화와 인권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더 큰 국제적 여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국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에 공감하며 해시태그 운동, 후원 물품 구매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제사회의 공식적 관심과 연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각국의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훨씬 적극적인 국제적 평판이나 여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들의 목소리를 형성하고, 캠페인과 로비 등을 통해 각국의 정부를 압박하여 행동하게 만든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05. 참고문헌

김종성. (2021.02.03.).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 OhmyNews.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16733

KBS. (2021.03.09). **미얀마 사태에 '유엔 무용론' 다시 수면 위로**. [유튜브 파일].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yi06MXADGAg>

YTN. (2021.04.04.). **미얀마 군경 발포 시민 4명 또 사망...누적 사망 550명**. [유튜브 파일].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4rCgsRqfbtc>

YTN. (2021.02.02.). **미얀마 군부는 왜 이 시점에 쿠데타를 일으켰나?**. YTN. Retrieved from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021257443791

